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5월 13일 월요일 (음 4월 9일) 제228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올해 2월 26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후 정부 주최로 처음으로 열리는 '제125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이 1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송하진 전북도지사, 정동영, 유성엽, 박주선 국회의원, 이형규 동학기념재단 이사장, 최효섭 유족회 이사장, 동학농민혁명 유족, 천도교 관계자 및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동학혁명 최초 주도는 '전북인들'

125주년 기념식

정부 주도 첫번째 기념식

혁명정신의 가치·의미

범국민적 확산 서울서 열려

125년만에 국가 법정기념일(5.11일)로 제정된 정부 주관의 첫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에서 동학농민혁명의 근·현대사 의미와 뿌리가 조명되고 주체 세력이었던 전북인들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

문체부와 전북도는 지난 11일 서울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제125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을 개최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발생한지 125년만에 법정 국가기념일이 황토현전승일(5월 11일)로 제정된 이후 치러진 첫 국가 기념식이라는 데 그 의미가 크다.

동학농민혁명은 평등하고 자유로운

나라를 꿈꾸던 아래로부터의 저항과 개혁 정신이다. 동학농민혁명의 민본 사상은 전국 곳곳의 의병활동과 올해 100주년을 맞는 3.1혁명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

그 혁명의 정신은 이후 4.19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혁명으로 계승되어 민주주의의 뿌리가 되었다.

정부(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박양우 문체부장관,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형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국회의원, 순화중 증손자, 전국 시·도지사, 혁명참여자 유족·단체,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전북에서는 송하진 도지사, 정읍시장, 부안군수, 고창부군수, 정읍·고창·부안 기념사업회원, 유족회 전주 지부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동학농민혁명은 125년전 고창 무장 기포지에서 포고문 낭독을 시작으로 촉발되어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전국적으로 전개된 대한민국 역사 근·현

대의의 민주·민중혁명의 뿌리다.

이번 기념식은 정부주도 첫 번째 기념식으로 그 혁명정신의 가치와 의미를 범국민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전북이 아닌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그 날의 함성이 재현되고 행사가 치러졌다 고 밝혔다.

이번 첫 번째 기념식은 동학농민혁명을 최초로 주도한 주체세력이 바로 '전북인들'이었다는 점이 부각됐다.

서막을 알리는 '천지가 울리다'에서도 무형문화재 제7호인 고창 우도농악의 신명나는 판굿을 시작으로, 혁명의 정신적 근간인 무장기포지 포고문이 낭독됐다.

폐막을 알리는 '대동의 세상에서'는 도 무형문화재 제63호인 전주 기점놀이 한바탕 서울광장에서 합굿을 벌였고, 도 무형문화재 제2호인 왕기석 명창과 정읍시립국악단이 공동으로 판소리 '천명'을 서울 하늘 아래에서 펼쳐놓았다. 고창 우도농악은 파날레를 장식했다.

특히 이날 기념식에 포함된 전북 공

연들은 수년간 기념일 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시·군이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는 의미로 전북도가 정부에 건의하여 구성됐다. 하나 된 화합의 장이 그 의미를 더했다.

전북도는 동학혁명 정신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재인식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9일 전북연구원에서 전북·대구경북·충북연구원 공동으로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기념 공동세미나'를 가진데 이어 오는 9월에는 또 서울에서 '동학농민혁명과 3.1운동의 연관성 조명'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를 추진하는 등 동학혁명정신 선양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기념식을 계기로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애족정신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가 국가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혁명의 발상지이자 주체인 전북도가 중심이 돼 동학정신 선양에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기자

社告

장애인의 날 기념을 위한

제13회 전국 장애인 가요제

일시: 2019년 5월 19일(일) 본선 오후 2시 30분

(예선 오전 10시)

장소: 전주 풍남문 광장(풍남문 옆)

장애인의 문화예술 참여 확대와 장애인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장애인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 전국 장애인 가요제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주최: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전주매일신문사
- ▶ 주관: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전주지소, 전주시 장애인 복지협회
- ▶ 후원 및 협찬: 전북도, (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본부, (사)한국연예예술인협회 전북지회, 호남향토음악발전협의회, 노사모, 전북장애인신문사, JJC 지방자치 TV 전북방송(녹화방송) 등
- ▶ 참가자격: 만 16세 이상 장애인(단, 전국대회 대상 1등 수상자 제외)
- ▶ 접수기간: 2019년 5월 14일 오후 6시까지
- ▶ 접수처: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1번지(5층), 063-231-6669
전주시 완산구 관선3길 21-15(2층), 063-286-6678
FAX: 063-287-6676, E-mail: yangokkim@hanmail.net



회기동안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처리

오늘 전북도의회 임시회 개최

전북도의회(의장 송성환)는 13일 제363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9일간의 회기에 돌입한다.

이번 회기는 전라북도교육청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15건(조례안 10, 예산안 1, 동의안 2, 건의안 2)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용근 의원 등 6명의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지방기록물관리기관 건립 정부지원 촉구 건의안, '빙주지방국세청 전주부소 설치추구 건의안'을 심의한다.

또한 오는 14일부터 2일간 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각 상임위별로 각종 의안 심사와 함께 특히,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진행된다.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제363회 임시회는 5월 2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위원회에서 심사 처리한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최종 의결 처리하고 폐회된다. /김진성 기자

열정·감동... 도민체전 성료

38개 종목 1만493명 참가 화합·우정 한마당 축제로

제56회 전북도민체육대회가 12일 오후 5시 고창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폐회식을 끝으로 사흘간의 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올해 대회에서는 도내 14개 시·군에서 검도, 골프 등 36개 정식종목과 파크골프, 보디빌딩 시범경기 2개 종목 등 모두 38개 종목에서 1만493명(선수 7154명, 임원 3349명)이 참가해 각 지역의 명예를 걸고 기량을 맘껏 펼쳤다.

이번 대회는 200만 전북도민의 화합과 우정을 다지는 한마당 축제로 열렸다. 한반도 첫 수도 고창다운 차별화되고 특색 있는 행사준비로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특히 도산리 고인돌에서 '세계최초 부시돌'로 채화된 성화는 단연 화제였다. 또 제43회 동백연 행사와 연계한 동백연 작품 입상작 전시, 고창의 기업·상품 등을 홍보하고 판매로 연결하는 고창존이 운영돼 고창군 관내 기업 매출 증대 효과가 컸다.

이번 대회를 찾은 1만여명의 선수·임원진과 관람객들은 50여 곳에 달하는 지역 내 숙박시설을 이용하

는 등 숙박업소와 음식점에 손님들이 북적였다.

전통시장을 비롯한 고창음식, 선운사 등 주요 관광지와 청보리밭, 전라예술제, 지역도사전 등에 외지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아 주민들의 소득과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을 알리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 여기에 대회기간 400여명에 달하는 고창군 자원봉사자들의 미소와 친절에도 호평이 이어졌다.

송하진 도지사는 폐회사에서 "따뜻한 인정으로 선수단을 맞이해주시고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유기상 고창군수를 비롯한 고창군민과 헌신적인 노고를 해 주신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유기상 군수는 "이번 고창에서 열린 도민체전은 대회운영은 물론, 군민참여 열기 등 역대 최고의 대회로 손꼽히기에 손색이 없다"며 "따뜻한 인정으로 선수단을 맞이하고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적극 협력해 주신 모든 군민들에게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고창=김영식기자

제13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2019. 5. 14(화) ~ 17(금) 4일간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2019. 5. 25(토) ~ 28(화) 4일간

주 개최지 익산시 (전라북도 일원)

익산시